

남북교역 2006년 평가 · 2007년 전망 및 애로사항

2007. 2

무역진흥본부
남북교역팀

본 부 장	권영욱 (5016)
팀 장	노성호 (5242)
담 당	서옥태 (5244)
담 당	이동주 (5243)
연구위원	이종근 (5591)

목 차

【 요약문 】

I. 조사개요	1
II. 남북교역현황 평가	2
1. 직 · 간접교역 실태	9
2. 반입품목관로 실태	10
3. 교역추진기간 업체별 분포	11
4. 2006년 교역규모 업체별 분포	2
III. 2006년 남북교역 성과	3
1. 교역실적 증감 실태	13
2. 수익 현황	14
3. 북한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영향	15
IV. 2007년도 남북교역 전망	6
1. 업체들의 증감 전망	16
2. 증가 전망 이유	17
3. 감소 전망 이유	18
V. 남북관계전망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	9
1. 업체들의 전망	19
2. 남북관계변동에 따른 남북교역 영향 평가	20

VI. 교역 실태	21
1. 품질만족도	21
2. 대금결제방식	22
3. 결제통화	23
4. 가격만족도	24
5. 반출입경로	25
6. 제3국 경유 운송 비중 및 사유	26
VII. 개성공단	27
1. 2007년 분양개시 시 투자의향	27
2. 투자 금 · 부정 이유	28
VIII.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29
1. 경험사무소 활용도	29
2. 경험사무소 역할에 대한 요망사항	30
IX. 분쟁	31
1. 분쟁에 대비한 계약 실태	31
2. 연간 클레임 발생 현황	32
3. 클레임 처리 실태	33
X. 교역업체의 시장개척수단	34
XI. 교역시 애로사항	35
XII.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	36
<첨부> #1. 설문지	34
#2. 응답업체 리스트	38

【 요약 문 】

□ 남북교역 2006년 평가

2006년 남북교역의 특징은 북한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사업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실적 증가율(28%)을 보였다는 점과 업체당 평균교역금액은 늘었으나 참여업체수가 전년보다 줄어 들었다는 점(△9%)임

○ 교역실적	: 13억 5천만달러 (전년대비 28% ↑)
○ 상업성거래 실적	: 9억 3천만달러 (전년대비 35% ↑)
○ 개성공단사업	: 3억달러 (전년대비 69% ↑)
○ 금강산관광사업	: 5천 7백만달러 (전년대비 35% ↓)
○ 참여업체수	: 477개 업체 (전년대비 9% ↓)
○ 업체당 평균교역실적	: 190만달러 (전년대비 48% ↑)

□ 교역실태

※ 수익실태 : 2006년 ⇨ 흑자 39% ; 적자 30%
2005년 ⇨ 흑자 33% ; 적자 40%

○ 교역형태	: 직접교역 42% ; 간접교역 27%
○ 반입품목 판로	: 내수 77% ; 수출 3%
○ 품질만족도	: 만족 43% ; 불만 23%
○ 가격만족도	: 만족 67% ; 불만 23%
○ 결제통화	: 미달러 68% ; 유로화 23%
○ 대금결제	: 송금환 60% ; 현금 11%
○ 핵실험 영향	: 컷다 44% ; 미미 54%

□ 2007년 남북교역 전망

- 업체들의 교역실적 전망 : 증가 47% ; 감소 23%
- 남북관계 전망 : 비슷 50% ; 개선 41%

□ 개성공단

- 향후 투자의향 : 관망 45% ; 투자하지 않음 23%
- 주된 투자사유 : 인건비 절감 및 구인난

□ 경협사무소

- 활 용 도 : 낮다 63% ; 적극 활용 21%
- 역할기대 : 육로운송 개통 등 인프라 구축

□ 분쟁

- 남측업체 클레임 제기 경험 : 업체의 46%
- 북측업체로부터 클레임 접수 경험 : 업체의 12%
- 클레임 처리실태 : 당사자간 합의 53%, 중도포기 16%
- ※ 교역시 가장 큰 애로사항 :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

<주된 내용 요약>

- 3通 (通行, 通信, 通貨)인프라 구축
- 4대 경협합의서의 조속한 이행
(투자보장, 청산결제제도,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기타>

- 북측 단일창구(민경련)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 해결
- 협력기금의 효율적 지원 요망
-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단합기구 결성 요망
- 개성공단외 지역 진출업체에 대한 배려
- 손실보조제도의 보험제도 개발
- 남북무역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

I. 조사개요

□ 목 적

- 금년도 남북교역 전망, 지난해 성과, 남북교역 관련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참여업체들의 현안을 파악하고 필요시 정부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기 간 : 총 31일간

- 설 문 기 간 : 2007. 1. 22 ~ 2. 9 (19일간)
- 보고서 작성 : 2007. 2. 12 ~ 2. 23 (12일간)

□ 대 상

- 무역협회 통계상 2006년도 남북교역실적이 있는 업체
- 경협사무소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중인 업체 등

□ 내 용

- 2006년도 교역성과 및 2007년도 전망
- 북핵사태가 미친 영향 및 교역현안
- 개성공단 및 경협사무소 관련
- 애로 및 건의사항 (정책과제)
- 분쟁 및 상사중재 관련 등

□ 방 법

- 설문지 배포 및 답변회수 (FAX, e-Mail, 전화, 직접면담 등)
- 보고서 작성시 무역협회 통계자료 참조

□ 설문회수율 : 39% (150/388)

- 총 대상 570여개 업체중 사업중단 혹은 연락두절 회사를 제외한 388개사에 설문지를 배포하여 150개 업체로부터 회신 접수

II. 남북교역현황 평가

□ 2006년 남북교역실적 일반현황 (무역협회 통계)

- 2006년 남북교역실적은 13억5천만달러로서 전년대비 27.8% 증가
- 반출 8억3천만달러(+16%) 및 반입 5억2천만달러(+53%) 기록
- 총 상업적거래는 9억3천만달러로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으며 비상업적거래는 4억2천만달러로서 15% 증가하였음
- 분야별로는 개성공단사업이 전년대비 69% 증가한 2억9천8백만달러, 기타경제협력사업이 149%증가한 1천5백만달러였음. 반면 금강산관광사업은 35% 감소한 5천7백만달러를 기록
- 비상업적거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등으로 하반기에 거의 성사되지 않아 15% 소폭 증가에 그쳤음

< 2006년 교역실적 현황 > 단위: 천달러,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대구분	중구분	소구분	2006년		
			반출	반입	합계
상업적 거래	교역	일반교역	22,178 (6.3)	281,952 (49.2)	304,130 (44.9)
		위탁가공교역	93,571 (19.1)	159,387 (21.4)	252,958 (20.6)
	경제 협력 사업	개성공단사업	222,853 (41.9)	75,943 (283.6)	298,796 (69.0)
		금강산관광사업	56,568 (△34.9)	86 (72.0)	56,654(△34.9)
		기타경제협력사업	14,511 (133.9)	1,019(3187.0)	15,530(149.1)
	합 계		409,682 17.2)	518,387 (52.4)	928,069 (34.5)
비상업 적 거래	대북 지원	민간지원	407,528 (67.9)	32 (△23.8)	407,560 (67.8)
		정부지원	11,696(△90.4)	0(△100.0)	11,696(△90.4)
	사회문화 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1,294 (124.2)	1,120 (449.0)	2,414 (209.0)
		합 계	420,518 (14.9)	1,152 (334.7)	421,670 (15.1)
	총 계		830,200 (16.0)	519,539 (52.6)	1,349,739(27.8)

주 : ()내는 전년(동월)비 증가율

□ 2006년 남북교역 참여업체 및 실적 (무역협회 통계)

- 남북교역 참여업체수 9% 감소 : 2006년중 남북교역에 참여한 업체수는 총 477개사로서 2005년 523개 업체가 참여했었는데 비해 46개 업체(약9%)가 감소
- 업체당 평균교역실적 190만달러로서 전년대비 48%증가 : 참여 업체수는 감소하였으나 업체별로 다양한 교역형태로 참여한 업체수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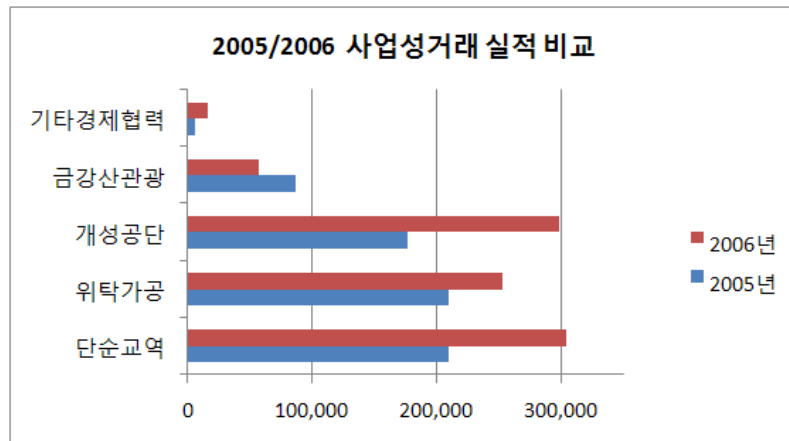
구분	2005년	2006년	증감
참여업체수 (단위: 개)	523	477	-46(-9%)
상업성 교역실적 (단위: US\$1,000)	689,541	928,069	+238,528(+35%)
전체(상업+비상업) 교역실적 (단위: US\$1,000)	1,055,754	1,349,739	+293,985(+28%)
상업성거래 업체당 평균교역실적 (단 위: US\$1,000)	1,318	1,945	627(+48%)

- 일반교역(단순교역) 부문에 다수 업체 집중 : 일반교역 399개, 위탁가공교역 123개, 개성공단사업 36개, 기타경제협력사업(금강산관광사업 포함) 18개로서 일반교역에 다수 업체가 집중

구 분	2005년	2006년	증감(%)	비 고
일반교역	379개	399개	20개(+5%)	일부업체는 교역형태의 중복이 있으므로 전체 교역업체수와 형태별 교역업체수 합은 일치하지 않음
위탁가공	136개	123개	-13개(-10%)	
개성공단	31개	36개	5개(16%)	
기 타	13개	18개	5개(38%)	
합계	559개	576개	17개(3%)	

□ 교역형태별 교역실적 비교

- **개성공단사업 비중 증가** : 개성공단사업 비중(17%→22%) 및 일반교역 비중(20%→23%)은 증가한 반면, 금강산관광사업 비중(8%→4%) 및 위탁가공교역 비중(20%→19%)은 감소
- **비상업성거래 비중 감소** (34%→31%)
- **일반교역금액 큰 폭(45%) 증가** : 농수산물 위주의 단순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 (US\$2억1천만 → US\$3억4백만)



거래형태 구분	2005년		2006년	
	실적(천달러)	비중(%)	실적(천달러)	비중(%)
단순(일반)교역	209,778	20	304,130	23
위탁가공	209,729	20	252,958	19
개성공단	176,763	17	298,795	22
금강산관광	87,065	8	56,654	4
기타경제협력	6,233	1	15,531	1
비상업성	366,186	34	421,671	31
합 계	1,055,754	100	1,349,739	100

□ 품목별 교역실적

○ 반입품목

- 철강금속제품류의 구성비가 크게 증가(13%→21%)하였는데 이는 주반입품목인 아연괴의 국제가격이 크게 인상된데 기인함. 아연괴의 반입수량은 감소세이며 2006년중에도 15.1% 감소

※ 아연괴(남북교역의 상징적 품목) 반입현황

구분	2005년		() 전년대비 증가율	
			2005년	2006년
중 량	31,573톤 (-13.6%)	⇒	26,803톤 (-15.1%)	
금 액	41,900천달러(+6.8%)		81,475천달러(+94.5%)	

- 섬유류는 의류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에 기인하여 줄곧 남북 교역의 대표사업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꾸준한 상승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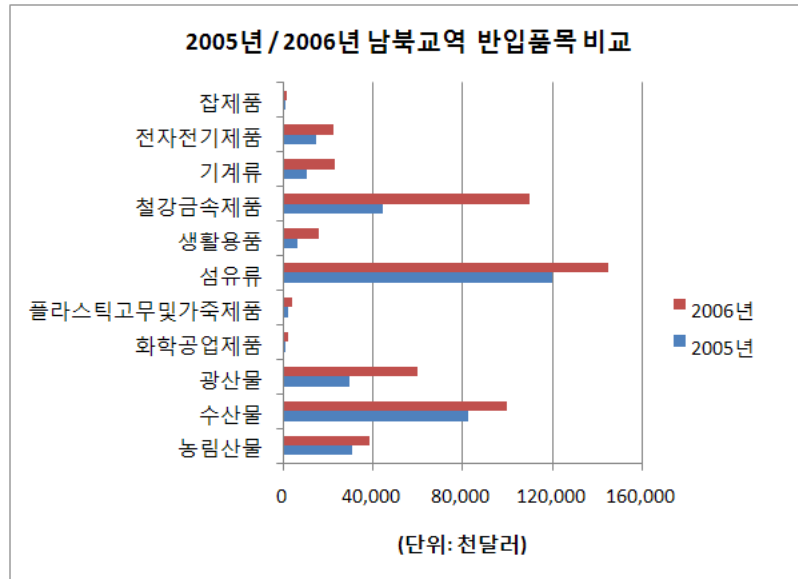
* 남북경제협사무소(2005. 10 개소)의 역할 증대도 의류위탁가공교역의 주요 활성화 요인으로 평가됨

- 일반교역의 주요품목인 수산물은 농림산물 보다 3배(금액기준) 가량 더 많이 반입되고 있음

- 품목별로 평가해 볼 때, 주요반입사업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반입)사업	2006년 반입실적(단위: 천달러)
일반교역	①아연괴	81,475
	②모래	50,347
	③조개류	35,136
	④건조 및 가공수산물	32,034
	⑤표고버섯	10,711
위탁가공교역	①의류위탁가공	140,608
	②전자제품위탁가공	12,730
개성공단	①신발류	9,823
	②의류	2,429

< 2005/2006 반입품목군별 현황 및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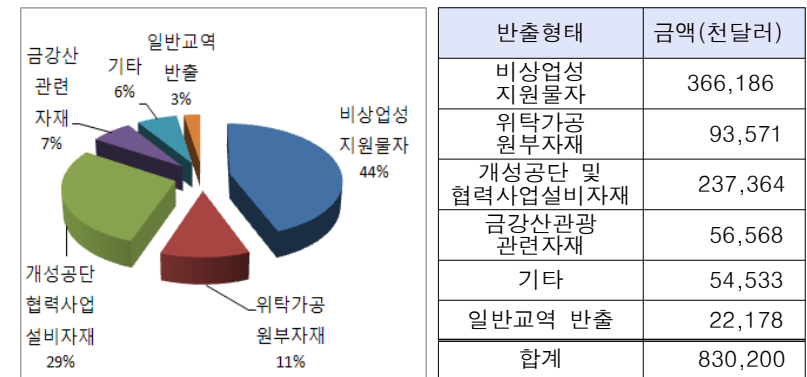


품 목	2005년		2006년	
	금액(천달러)	구성비(%)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림산물	30,438	8.9	38,263	7.4
수산물	82,171	24.1	99,592	19.2
광산물	29,238	8.6	59,733	11.5
화학공업제품	544	0.2	1,868	0.4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674	0.5	3,803	0.7
섬유류	120,294	35.4	144,807	27.9
생활용품	6,025	1.8	15,511	3.0
철강금속제품	44,301	13.0	110,147	21.2
기계류	10,438	3.1	22,702	4.4
전자전기제품	14,460	4.2	21,997	4.2
잡제품	698	0.2	1,118	0.2
합 계	340,281	100	519,539	100

o 반출품목

- 대북쌀지원이 포함된 농림산물 및 대북비료지원이 포함된 화학공업제품이 전체 반출금액의 48%를 차지
- 기타 섬유류는 대북의류위탁가공교역의 원부자재, 철강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전자제품 등은 개성공단사업의 공장건축과 관련된 자재로서 반출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
- 대북반출품목은 ①대북지원물자, ②위탁가공교역의 원부자재 반출물자, ③개성공단 및 협력사업 관련 설비 반출물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순수 남측상품이 북측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반출의 사례(경화결제 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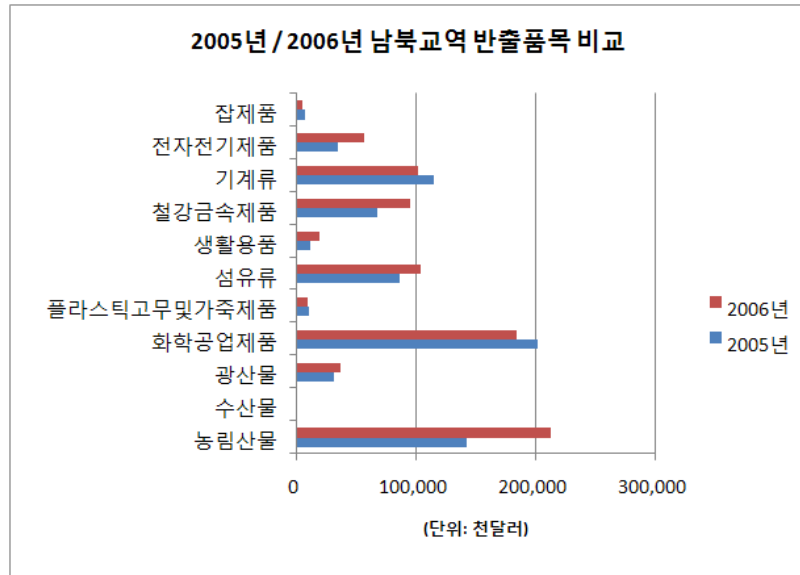
<반출내용 분석>



- 대북반출 대표품목 (2006년 기준)

순위	품 목	금액(천달러)	증가율(%)	구성비(%)	비고
1	동계권선용전선	3,265	76.2	14.7	일본업체의 대북위탁가공 원부자재
2	변압기부품	2,357	9.0	10.6	
3	기계류	1,829	237.4	8.2	
4	선박	1,809	65.9	8.2	
5	경유	1,445	507.1	6.5	
합 계		10,705		48.2	

< 2005/2006 반출품목군별 현황 및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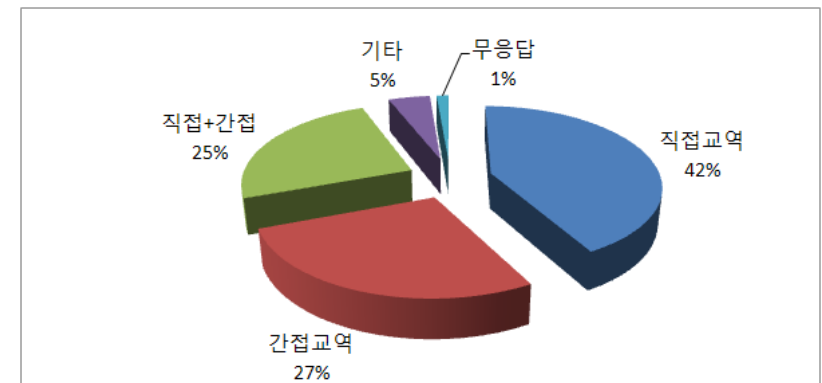
품 목	2005년		2006년	
	금액(천달러)	구성비(%)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림산물	143,406	20.0	212,898	25.6
수산물	1,238	0.2	995	0.1
광산물	31,740	4.4	36,873	4.4
화학공업제품	202,655	28.3	184,821	22.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10,973	1.5	9,883	1.2
섬유류	87,203	12.2	104,781	12.6
생활용품	12,634	1.8	19,447	2.3
철강금속제품	67,855	9.5	95,909	11.6
기계류	114,888	16.1	102,395	12.3
전자전기제품	35,026	4.9	57,137	6.9
잡제품	7,857	1.1	5,062	0.6
합계	715,472	100	830,200	100

II-1 직 · 간접교역 실태

□ 직접교역 42%, 간접교역 27%

- 응답업체의 42%는 직접교역형태로 남북교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7%는 간접교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
- 2006년 2월 설문조사시와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는데 직접교역 수단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교역이 꾸준히 유지되는 것은 북측 민경련이 해외 연락사무소를 통해 중국업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방침때문인 것으로 풀이됨

* 2006년 결과 : 직접교역 46%, 간접교역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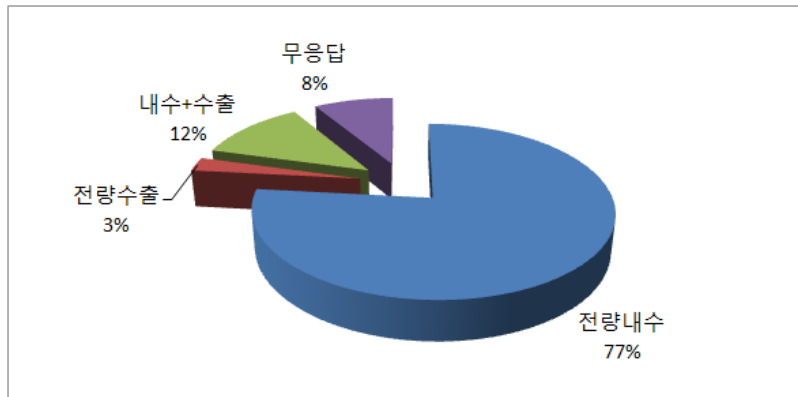


문	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	타	전	체
직접	교역	19(26.8%)	25(53.2%)	8(66.7%)	11(55.0%)	63(42.0%)		
간접	교역	24(33.8%)	12(25.5%)	1(8.3%)	4(20.0%)	41(27.3%)		
직접+간접		26(36.6%)	9(19.1%)	1(8.3%)	1(5.0%)	37(24.7%)		
기타		2(2.8%)	0	2(16.7%)	3(15.0%)	7(4.7%)		
무응답		0	1(2.1%)	0	1(5.0%)	2(1.3%)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II-2 반입품목판로 실태

□ 북한산 반입품은 대부분 내수용

- 응답업체의 77%가 북한산 반입품을 전량 내수용으로 사용한다고 응답, 전량 수출한다고 응답한 업체는 3%에 불과
- 내수와 수출을 겸하고 있는 업체수는 12%로서 전반적으로 북한산 상품의 수출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위탁가공교역 품목은 94%가 내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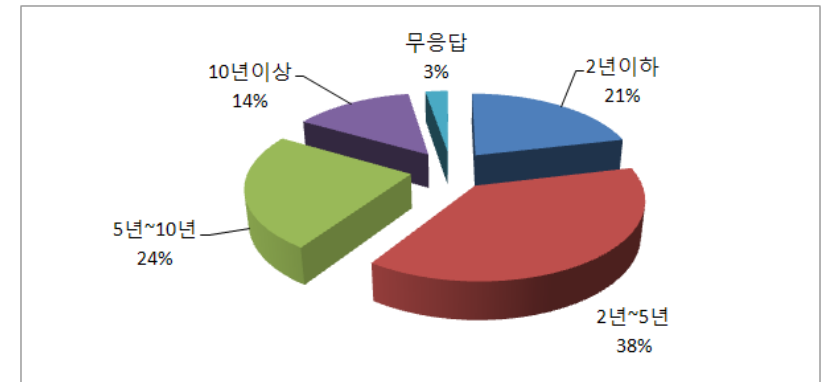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전량내수	55(77.5%)	44(93.6%)	6(50.0%)	10(50.0%)	115(76.7%)
전량수출	2(2.8%)	1(2.1%)	0	1(5.0%)	4(2.7%)
내수+수출	12(16.9%)	1(2.1%)	2(33.3%)	3(15.0%)	18(12.0%)
무응답	2(2.8%)	1(2.1%)	4(33.3%)	6(30.0%)	13(8.7%)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II-3 교역추진기간 업체별 분포

□ 남북교역 추진기간 5년 이하 업체가 59%

- 남북교역 추진기간이 2년 이하가 21%, 2~5년이 38%로서 다수를 차지하였고 10년이상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체도 23%에 달했음
- 그러나, 사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재개하는 업체를 감안할 경우 실제 통계상 10년 연속으로 사업을 추진한 업체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통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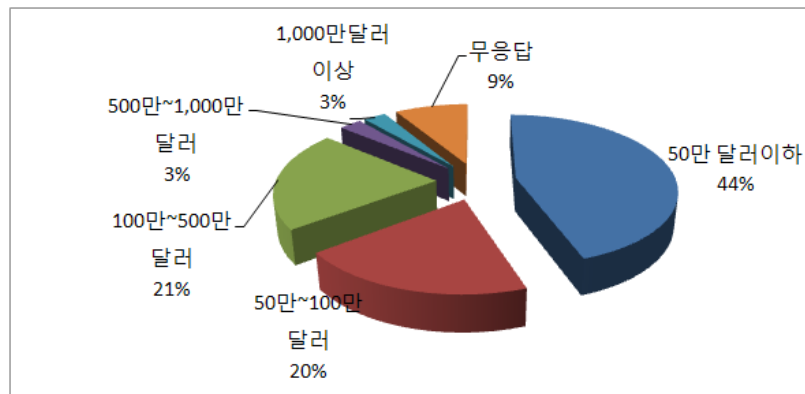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2년이하	16(22.5%)	8(17.0%)	4(33.3%)	4(20.0%)	32(21.3%)
2년~5년	25(35.2%)	22(46.8%)	6(50.0%)	4(20.0%)	57(38.0%)
5년~10년	18(25.4%)	11(23.4%)	0.0	7(35.0%)	36(24.0%)
10년이상	12(16.9%)	5(10.6%)	0.0	4(20.0%)	21(22.8%)
무응답	0.0	1(2.1%)	2(16.7%)	1(5.0%)	4(2.7%)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II-4 2006년 교역규모 업체별 분포

□ 업체당 5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거래업체가 많음

- 응답업체 44%가 연간 50만달러 이하의 대북교역실적을 기록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100만달러 이하의 교역실적을 기록한 업체가 전체의 64%를 차지
- 1,000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한 업체는 3%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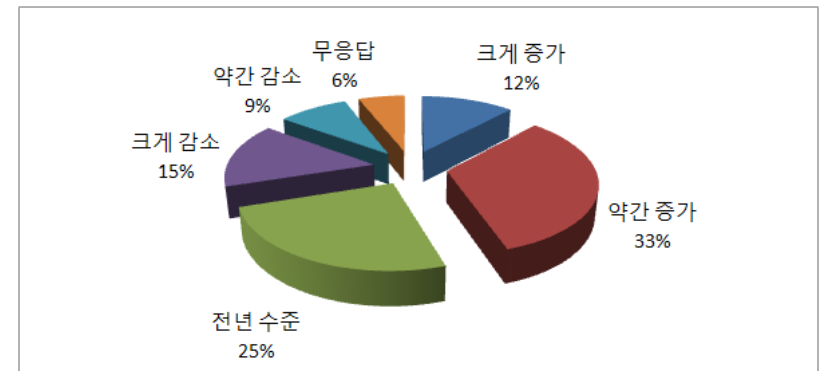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50만 달러이하	40(56.3%)	17(36.2%)	2(16.7%)	8(40.0%)	67(44.7%)
50만~100만 달러	11(15.5%)	15(31.9%)	1(8.3%)	3(15.0%)	30(20.0%)
100만~500만 달러	16(22.5%)	8(17.0%)	4(33.3%)	4(20.0%)	32(21.3%)
500만~1,000만 달러	2(2.8%)	1(2.1%)	0	1(5.0%)	4(2.7%)
1,000만달러 이상	1(1.4%)	1(2.1%)	1(8.3%)	1(5.0%)	4(2.7%)
무응답	1(1.4%)	5(10.6%)	4(33.3%)	3(15.0%)	13(8.7%)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III. 2006년 남북교역 성과

III-1 교역실적 증감 실태

□ 응답업체 45%, 전년대비 교역실적 증가

- 응답업체의 45%가 지난해보다 교역실적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24%는 감소로 응답. 특히, 개성공단업체들의 실적 증가가 50%로 가장 높았고 일반교역은 42%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
- 2005년 설문조사시 응답업체의 59%가 2006년 교역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었음



문항	단순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계
크게 증가	10 (14%)	4 (9%)	2 (17%)	2 (10%)	18 (12%)
약간 증가	20 (28%)	17 (36%)	4 (33%)	8 (40%)	49 (33%)
전년 수준	21 (30%)	11 (23%)	2 (17%)	4 (20%)	38 (25%)
크게 감소	8 (11%)	10 (21%)	1 (8%)	3 (15%)	22 (15%)
약간 감소	10 (14%)	3 (6%)	0	1 (5%)	14 (9%)
무응답	2 (3%)	2 (4%)	3 (25%)	2 (10%)	9 (6%)
계	71 (100%)	47 (100%)	12 (100%)	20 (100%)	1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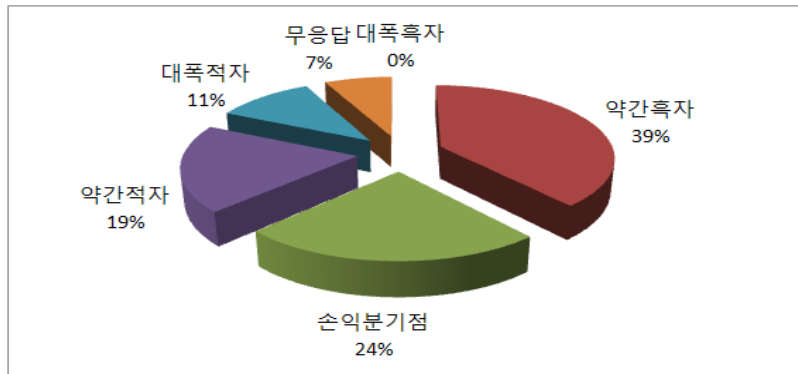
Ⅲ-2 수익 현황

□ 남북교역 경영수익면에서 응답업체 39% 흑자, 30% 적자로 응답

- 응답업체중 39%가 약간흑자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자를 보았다는 응답자는 30%였음. 대폭흑자로 응답한 업체는 없음
- 전년(흑자33%, 적자40%로 응답)대비 흑자 업체비율은 6% 증가, 적자업체비율은 7% 감소하여 수익구조가 다소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위탁가공교역업체 흑자 응답자 55%

- 교역형태별로는 위탁가공교역업체들의 흑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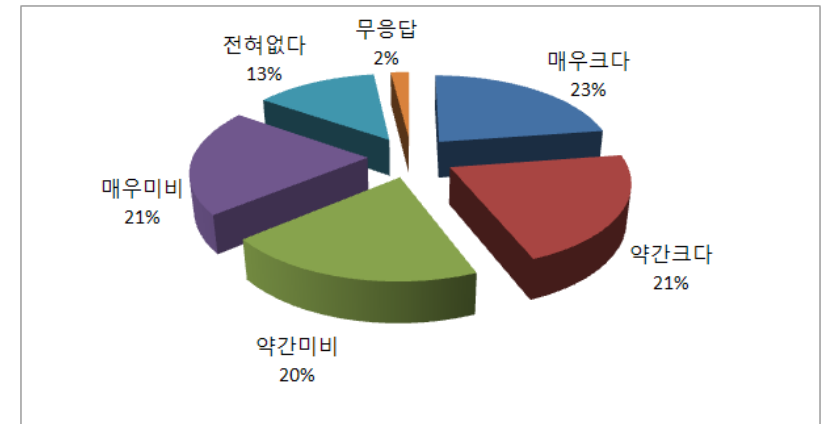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대폭흑자	0	0	0	0	0
약간흑자	29(40.8%)	26(55.3%)	1(8.3%)	2(10.0%)	58(38.7%)
손익분기점	21(29.6%)	8(17.0%)	1(8.3%)	6(30.0%)	36(24.0%)
약간적자	11(15.5%)	7(14.9%)	5(41.7%)	6(30.0%)	29(19.3%)
대폭적자	8(11.3%)	3(6.4%)	2(16.7%)	3(15.0%)	16(10.7%)
무응답	2(2.8%)	3(6.4%)	3(25.0%)	3(15.0%)	11(7.3%)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Ⅲ-3 북한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영향

□ 응답업체 44%, 북한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영향 받음

- 응답업체의 23%가 매우 크게, 21%가 약간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전혀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자도 13%가 되었음
- 응답업체의 41%는 미비하였다고 답변하여 실제 사업상 영향보다 심리적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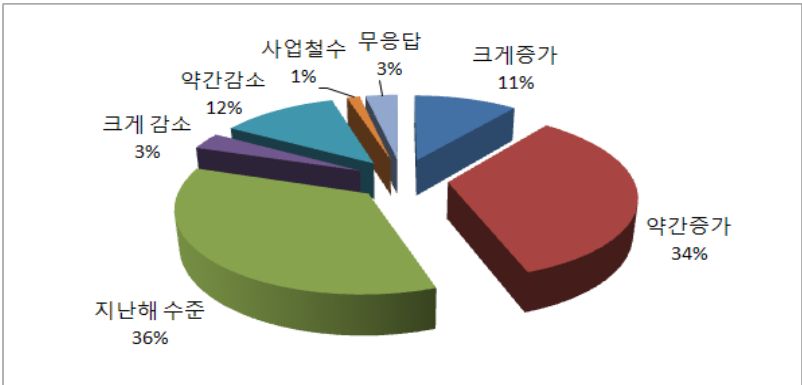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매우크다	12(16.9%)	8(17.0%)	5(41.7%)	9(45.0%)	34(22.7%)
약간크다	13(18.3%)	8(17.0%)	6(50.0%)	5(25.0%)	32(21.3%)
약간미비	17(23.9%)	10(21.3%)	1(8.3%)	2(10.0%)	30(20.0%)
매우미비	16(22.5%)	13(27.7%)	0	2(10.0%)	31(20.7%)
전혀없다	13(18.3%)	6(12.8%)	0	1(5.0%)	20(13.3%)
무응답	0	2(4.3%)	0	1(5.0%)	3(2.0%)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IV. 2007년 남북교역 전망

IV-1 업체들의 교역실적 전망

□ 응답업체 45%가 2007년 남북교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대북교역 전망에 대해 응답업체의 11%는 크게 증가, 34%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준으로 전망한 업체도 35%가 되었음. 반면에 감소전망은 15%, 사업을 완전철수하겠다는 업체는 1.3%에 불과
- 개성공단업체는 거의 대부분 지난해 수준 혹은 크게 증가할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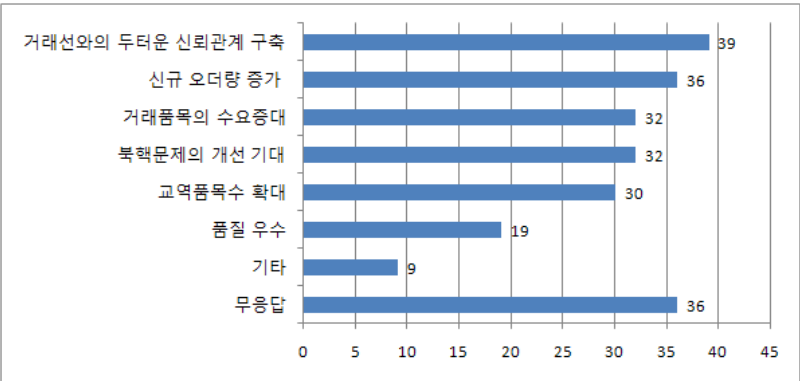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크게증가	6(8.5%)	4(8.5%)	5(41.7%)	1(5.0%)	16(10.7%)
약간증가	24(33.8%)	14(29.8%)	4(33.3%)	9(45.0%)	51(34.0%)
지난해 수준	27(38.0%)	19(40.4%)	2(16.7%)	5(25.0%)	53(35.3%)
크게 감소	2(2.8%)	1(2.1%)	0	2(10.0%)	5(3.3%)
약간감소	12(16.9%)	6(12.8%)	0	0	18(12.0%)
사업철수	0	1(2.1%)	0	1(5.0%)	2(1.3%)
무응답	0	2(4.3%)	1(8.3%)	2(10.0%)	5(3.3%)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IV-2 증가 전망 이유

□ 거래선과의 두터운 신뢰관계 구축이 증가 전망 주요인

- 2007년 대북교역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들은 거래선과의 두터운 신뢰관계 구축(17%), 신규오더량 증가(16%) 등을 증가 전망 주요인으로 지목하였음
- 북핵문제의 해결 등 남북관계의 개선을 증가 전망 주이유로 지목한 업체도 14%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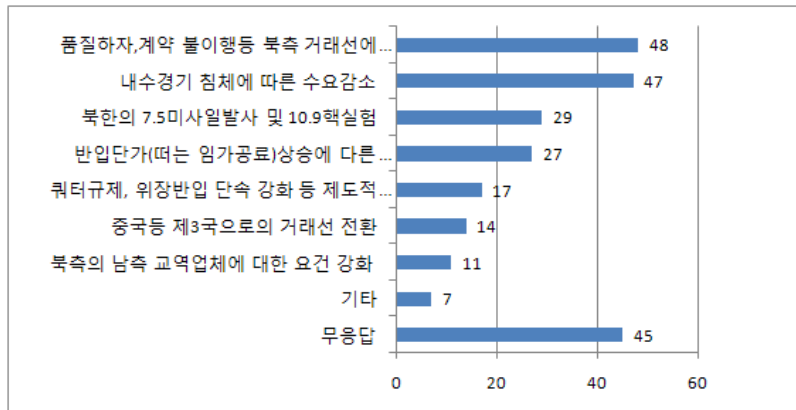


문항	응답업체 (복수응답)
신규 오더량 증가	36(15.5%)
품질 우수	19(8.2%)
교역품목수 확대	30(12.9%)
거래선와의 두터운 신뢰관계 구축	39(16.7%)
거래품목의 수요증대	32(13.7%)
북핵문제해결 등 남북관계의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	32(13.7%)
기타	9(3.9%)
무응답	36(15.5%)
합계	233(100.0%)

IV-3 감소 전망 이유

□ 분쟁해결의 어려움이 가장 큰 감소 전망 요인

- 품질하자, 계약불이행 등 북측 거래선에 대한 신뢰미흡이 향후 대북교역의 주요 감소요인으로 지목 (20%)
-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북한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등도 감소전망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 (19%,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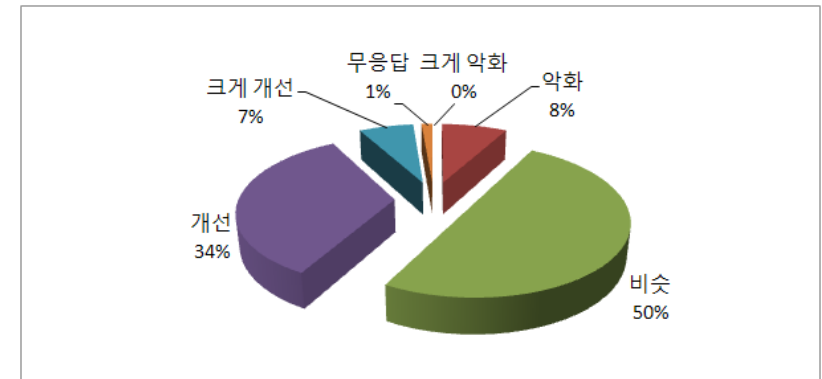
문항	응답업체 (복수응답)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47 (19.2%)
반입단가(또는 임가공료)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27 (11.0%)
품질하자, 계약 불이행 등 북측 거래선에 대한 신뢰 미흡	48 (19.6%)
쿼터규제, 위장반입 단속 강화 등 제도적 요인	17 (6.9%)
중국 등 제3국으로의 거래선 전환	14 (5.7%)
북측의 남측 교역업체에 대한 요건 강화	11 (4.5%)
북한의 7.5미사일발사 및 10.9핵실험	29 (11.8%)
기타	7 (2.9%)
무응답	45 (18.4%)
합 계	245 (100%)

V. 남북관계전망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

V-1 업체들의 전망

□ 6자회담 타결전 실시했던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매우 적었음

- 응답업체의 50%가 향후 남북관계전망에 대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41%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전체의 8%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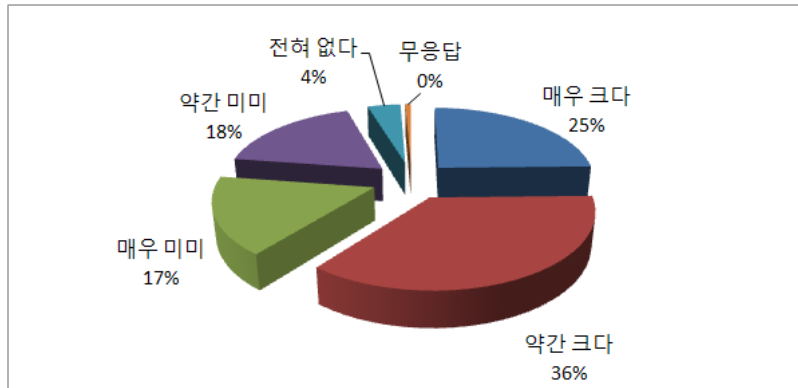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크게 악화	0	0	0	0	0
악화	6(8.5%)	3(6.4%)	1(8.3%)	2(10.0%)	12(8.0%)
비슷	39(54.9%)	28(59.6%)	2(16.7%)	6(30.0%)	75(50.0%)
개선	19(26.8%)	14(29.8%)	7(58.3%)	11(55.0%)	51(34.0%)
크게 개선	7(9.9%)	0	2(16.7%)	1(5.0%)	10(6.7%)
무응답	0	2(4.3%)	0	0	2(1.3%)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V-2 남북관계변동에 따른 남북교역 영향평가

□ 남북관계변동에 따른 영향은 비교적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남북교역업체들은 대체적으로 향후의 남북관계전망을 밝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변동이 대북사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61%에 달했음
- 그러나, 한편 그 영향이 미미하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한 업체도 39%나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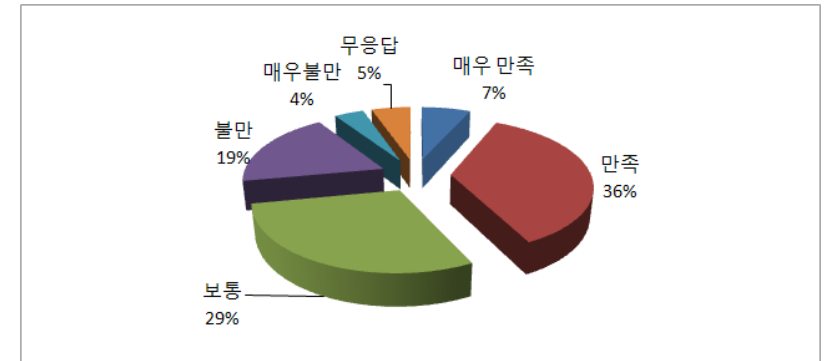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매우 크다	11(15.5%)	9(19.1%)	8(66.7%)	9(45.0%)	37(24.7%)
약간 크다	26(36.6%)	17(36.2%)	4(33.3%)	7(35.0%)	54(36.0%)
매우 미미	14(19.7%)	10(21.3%)	0	1(5.0%)	25(16.7%)
약간 미미	16(22.5%)	9(19.1%)	0	2(10.0%)	27(18.0%)
전혀 없다	3(4.2%)	2(4.3%)	0	1(5.0%)	6(4.0%)
무응답	1(1.4%)	0	0	0	1(0.7%)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VI. 교역 실태

VI-1 품질 만족도

□ 품질 만족도, 비교적 높은 편 (43%)

- 응답업체의 43%가 북한산 물품에 대해 만족 혹은 매우만족으로 응답하였으며 불만이거나 매우 불만인 업체도 23%였음
- 위탁가공교역업체들은 61%가 품질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교역형태별 분류에서 가장 높게 나왔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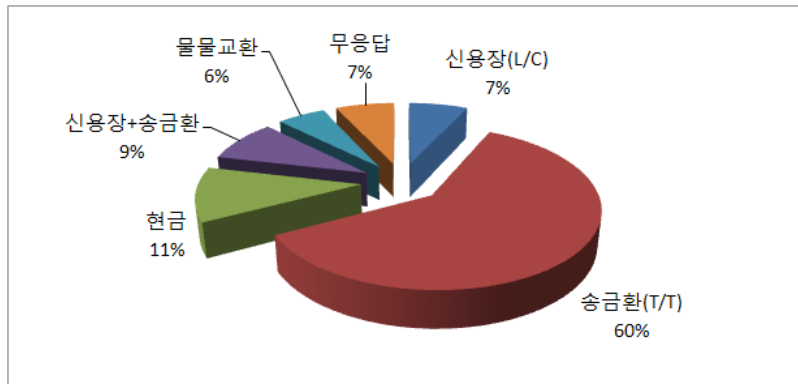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매우 만족	7(9.9%)	3(6.5%)	0	0	10(6.7%)
만족	21(29.6%)	25(54.3%)	3(25.0%)	5(25.0%)	54(36.0%)
보통	19(26.8%)	13(28.3%)	5(41.7%)	7(35.0%)	44(29.3%)
불만	20(28.2%)	4(8.7%)	1(8.3%)	3(15.0%)	28(18.7%)
매우불만	4(5.6%)	2(4.3%)	0	0	6(4.0%)
무응답	0	0	3(25.0%)	5(25.0%)	8(5.3%)
계	71(100%)	46(100%)	12(100%)	20(100%)	150(100%)

VI-2 대금결제방식

□ 남북교역의 주 대금결제방식은 송금환(T/T) 방식

- 응답업체의 60%가 송금환(T/T) 방식으로 대금결제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1%는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신용장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업체도 7%가 되었으나 이는 제3국 중개인과의 대금결제방식인 것으로 추정됨
- 물물교환방식의 대금결제를 한다는 응답업체도 6%가 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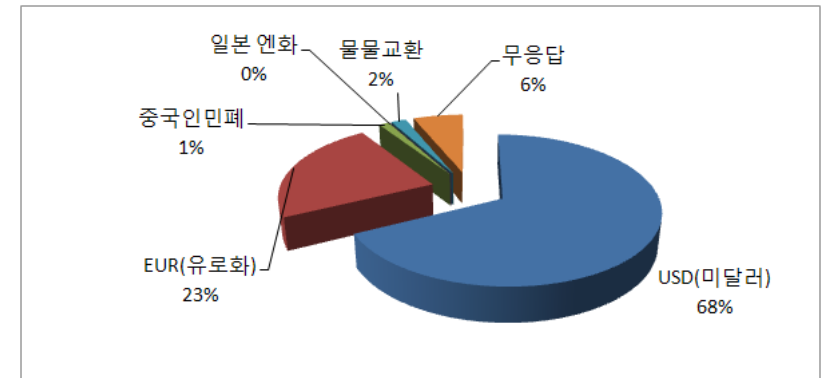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신용장(L/C)	9(11.7%)	1(2.1%)	1(8.3%)	0	11(6.9%)
송금환(T/T)	38(49.4%)	40(85.1%)	5(41.7%)	13(56.5%)	96(60.4%)
현금	7(9.1%)	2(4.3%)	4(33.3%)	5(21.7%)	18(11.3%)
신용장+송금환	11(14.3%)	3(6.4%)	0	0	14(8.8%)
물물교환	8(10.4%)	0	0	1(4.3%)	9(5.7%)
무응답	4(5.2%)	1(2.1%)	2(16.7%)	4(17.4%)	11(6.9%)
계	77(100%)	47(100%)	12(100%)	23(100%)	159(100%)

VI-3 결제통화

□ 남북교역의 주 결제통화는 U.S.달러

- 응답업체의 68%가 미달러를 결제통화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유로화를 결제통화로 하는 업체도 23%가 되었음
- 2003년 이전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유로화의 사용이 증가하는 것은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환차손 등을 우려한 남측업체들의 사용기피로 대폭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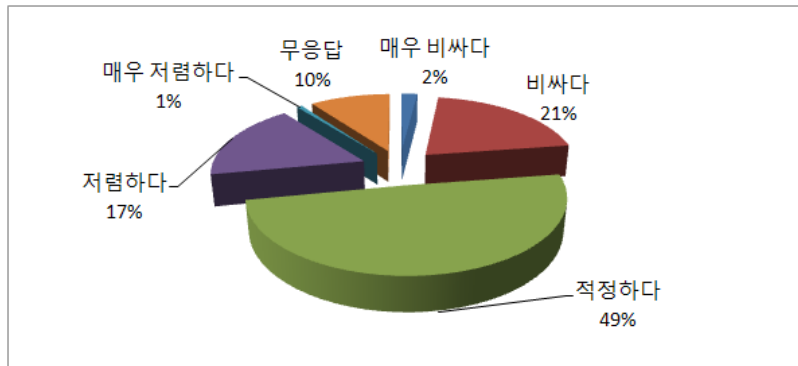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USD(미달러)	59(74.7%)	27(54.0%)	10(83.3%)	13(65.0%)	109(67.7%)
EUR(유로화)	11(13.9%)	23(46.0%)	1(8.3%)	2(10.0%)	37(23.0%)
중국인민폐	1(1.3%)	0	0	1(5.0%)	2(1.2%)
일본 엔화	0	0	0	0	0
물물교환	3(3.8%)	0	0	0	3(1.9%)
무응답	5(6.3%)	0	1(8.3%)	4(20.0%)	10(6.2%)
계	79(100%)	50(100%)	0	0	161(100%)

VI-4 가격 만족도

□ 북한 생산품에 대한 가격 만족도 높은 편 (67%)

- 응답업체의 67%가 북한 생산품의 가격에 대해 적정 혹은 저렴한 것으로 응답하여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위탁가공교역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았음 (86%)
- 그러나, 일반교역업체들은 32% 정도가 비싸다 혹은 매우 비싸다로 응답하여 가격 불만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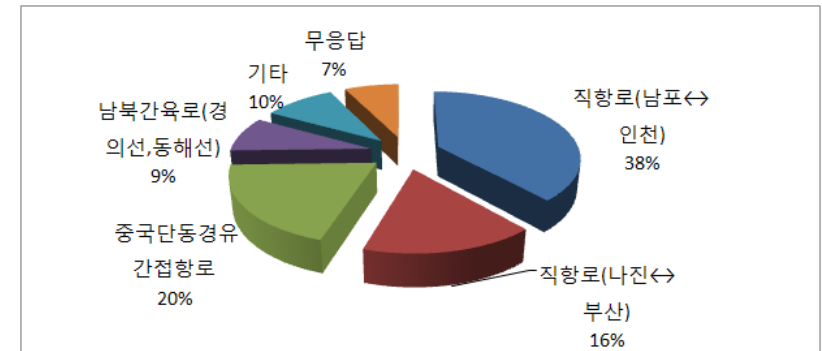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매우 비싸다	2(2.8%)	0	0	1(5.0%)	3(2.0%)
비싸다	21(29.6%)	5(10.6%)	1(8.3%)	4(20.0%)	31(20.7%)
적정하다	36(50.7%)	26(55.3%)	5(41.7%)	7(35.0%)	74(49.3%)
저렴하다	7(9.9%)	14(29.8%)	2(16.7%)	3(15.0%)	26(17.3%)
매우 저렴하다	0	1(2.1%)	0	0	1(0.7%)
무응답	5(7.0%)	1(2.1%)	4(33.3%)	5(25.0%)	15(10.0%)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VI-5 반출입 경로

□ 남북교역의 주 항로는 「남포⇔인천」 직항로

- 응답업체의 38%가 반출입경로로서 「남포-인천」 직항로를 이용하고 있음
- 중국 단둥을 경유한 간접항로 이용 업체도 20%나 되어 아직 직항로의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기할 만한 점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업체들도 일부 육로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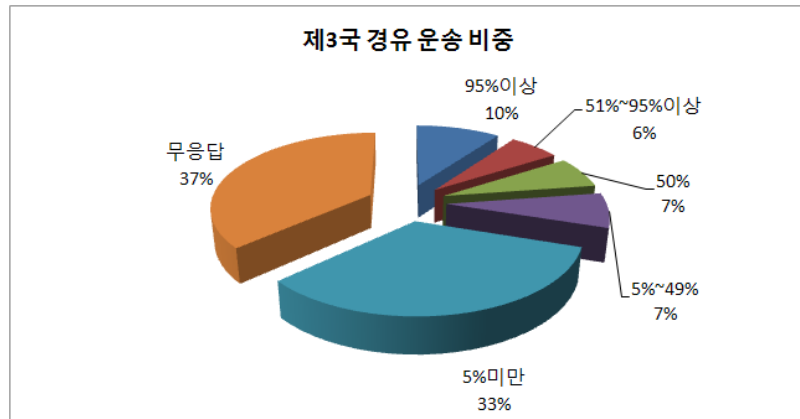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직항로(남포↔인천)	30(34.5%)	30(55.6%)	1(7.1%)	7(31.8%)	68(38.4%)
직항로(나진↔부산)	25(28.7%)	2(3.7%)	0	2(9.1%)	29(16.4%)
중국단둥경유 간접항로	12(13.8%)	18(33.3%)	1(7.7%)	4(18.2%)	35(19.8%)
남북간육로(경의선, 동해선)	3(3.4%)	1(1.9%)	7(58.3%)	4(18.2%)	15(8.5%)
기타	11(12.6%)	1(1.9%)	3(60.0%)	2(9.1%)	17(9.6%)
무응답	6(6.9%)	2(3.7%)	2(14.3%)	3(13.6%)	13(7.3%)
계	87(100%)	54(100%)	14(100%)	22(100%)	177(100%)

VI-6 제3국 경유 운송비중 및 운송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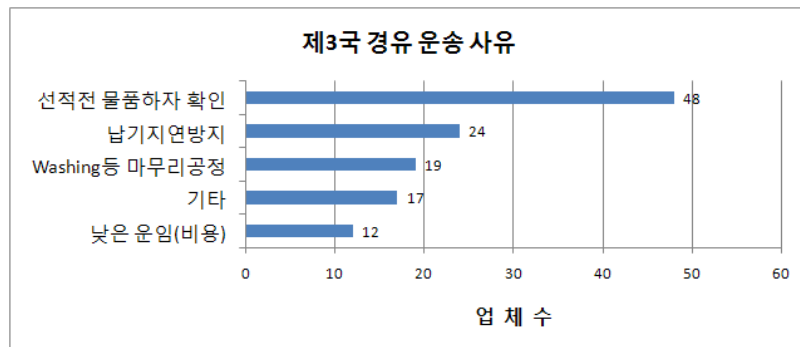
□ 제3국 경유 운송은 필요성이 있을 때만 활용하는 업체가 다수

- 제3국 경유 운송 비중은 5%미만인 경우가 33%로서 대부분 업체들은 직항로를 주로 이용하되 긴급한 상황 발생 혹은 제3국 경유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제3국 경유 운송의 주된 사유는 상품검사 목적

- 선적전 제3국에서 상품을 검사하기 위해 제3국 경유 운송을 시도한다고 응답한 업체가 다수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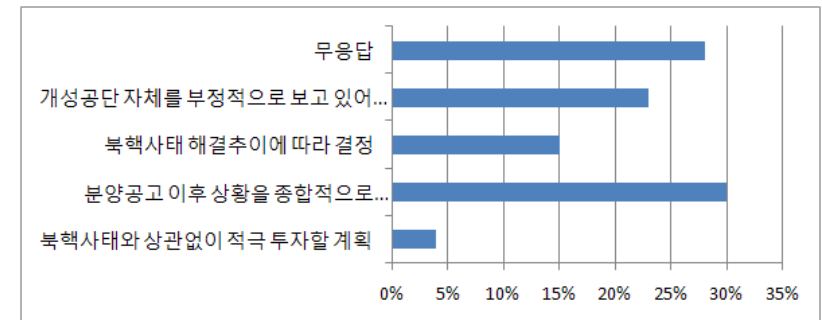
VII. 개성공단

VII-1 2007년 분양개시 시 투자의향

□ 개성공단투자 관망 추세

- 북핵사태 등 현 한반도 상황과 상관없이 적극 투자를 계획하겠다는 업체는 응답업체의 4%에 불과
- 분양공고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겠다는 업체(30%) 및 북핵사태 해결추이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업체(15%) 등 관망자세를 취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를 차지

* 본 설문조사는 6자회담 타결(2007. 2. 13) 이전 실시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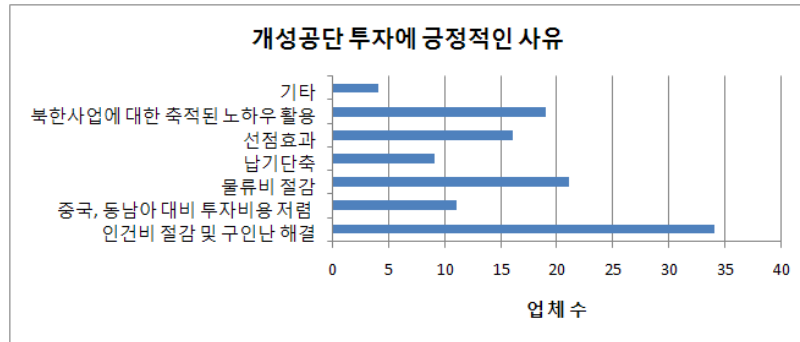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북핵사태와 상관없이 적극 투자할 계획	3(4.2%)	1(2.1%)	2(16.7%)		6(4.0%)
분양공고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23(32.4%)	12(25.5%)	5(41.7%)	5(25.0%)	45(30.0%)
북핵사태 해결추이에 따라 결정	12(16.9%)	9(19.1%)		2(10.0%)	23(15.3%)
개성공단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투자하지 않음	13(18.3%)	14(29.8%)		7(35.0%)	34(22.7%)
무응답	20(28.2%)	11(23.4%)	5(41.7%)	6(30.0%)	42(28.0%)
합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VII-2 투자 긍·부정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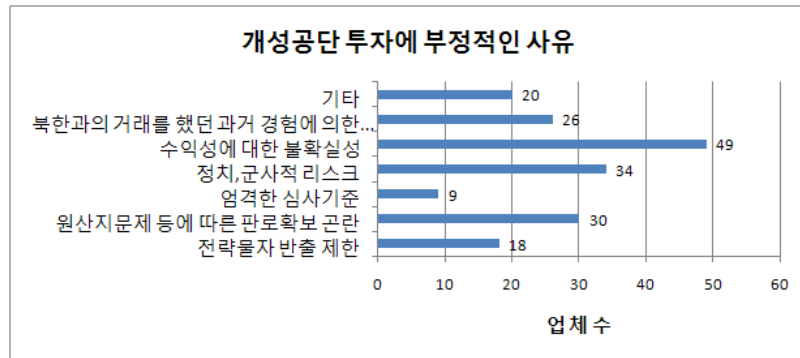
□ 개성공단 투자에 긍정적 사유

- 인건비 절감과 구인난 해결을 개성공단투자에 적극적인 주된 사유로 지목하고 있음



□ 개성공단 투자에 부정적인 사유

-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과 정치·군사적 리스크를 개성공단투자에 부정적인 사유로 꼽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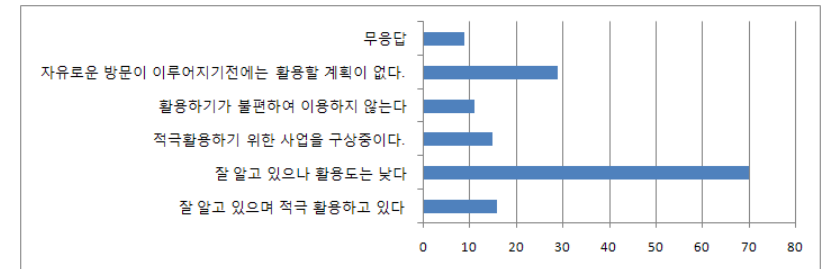


VIII.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VIII-1 경험사무소 활용도

□ 응답업체 대부분 경험사무소 역할 인지

- 응답업체의 75%가 대북사업에서 경험사무소를 활용하고 있거나 적극 활용할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19%의 업체는 자유로운 방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여 초청장제도로 인한 불편한 방문 절차가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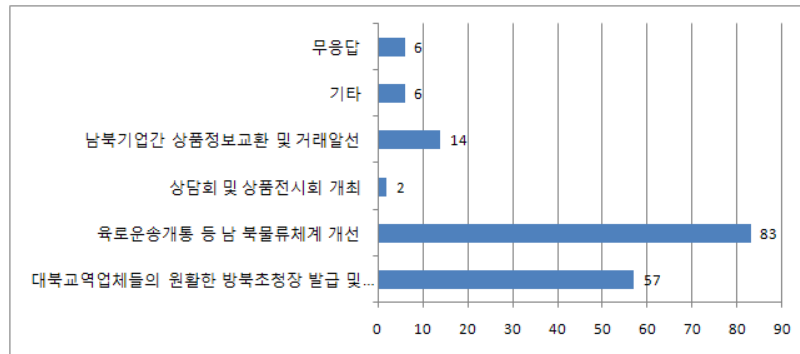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 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잘 알고 있으며 적극 활용하고 있다	2(2.8%)	12(25.5%)	1(8.3%)	1(5.0%)	16(10.7%)
잘 알고 있으나 활용도는 낮다	27(38.0%)	27(57.4%)	8(66.7%)	8(40.0%)	70(46.7%)
적극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중이다	8(11.3%)	2(4.3%)	2(16.7%)	3(15.0%)	15(10.0%)
활용하기가 불편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10(14.1%)	0	0	1(5.0%)	11(7.3%)
자유로운 방문이 이루어지기전에는 활용할 계획이 없다	21(29.6%)	2(33.3%)	1(8.3%)	5(25.0%)	29(19.3%)
무응답	3(4.2%)	4(8.5%)	0	2(10.0%)	9(6.0%)
합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VIII-2 경협사무소 역할에 대한 요망사항

□ 경협사무소의 남북물류인프라 개선 역할 기대

- 응답업체의 49%가 육로운송 개통 등 물류인프라 구축이 경협 사무소의 주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인식. 또한 응답업체 34%는 교역업체들의 원활한 방북초청장 발급 및 상담주선에 대한 역할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상담회 및 상품전시회 개최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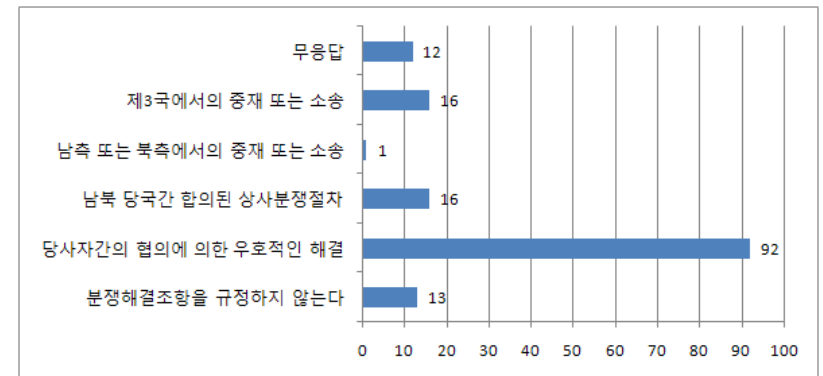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 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남북교역업체들의 원활한 방북초청장 발급 및 상담주선	27(34.6%)	19(35.8%)	5(35.7%)	6(26.1%)	57(33.9%)
육로운송개통 등 남북물류체계 개선	39(50.0%)	28(52.8%)	5(35.7%)	11(47.8%)	83(49.4%)
상담회 및 상품전시회 개최	1(1.3%)	1(1.9%)	0	0	2(1.2%)
남북기업간 상품정보교환 및 거래알선	6(7.7%)	2(3.8%)	2(14.3%)	4(17.4%)	14(8.3%)
기타	1(1.3%)	3(5.7%)	1(7.1%)	1(4.3%)	6(3.6%)
무응답	4(5.1%)	0	1(7.1%)	1(4.3%)	6(3.6%)
합계	78(100%)	53(100%)	14(100%)	23(100%)	168(100%)

IX. 분쟁

IX-1 분쟁에 대비한 계약 실태

□ 분쟁해결 조항 미흡

- 응답업체의 70%가 복측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쟁해결조항을 규정하지 않거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우호적 해결이란 모호한 방법으로 계약
- 개성공단 입주업체들(50%)은 남북당국간 합의된 상사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고 응답, 어느 정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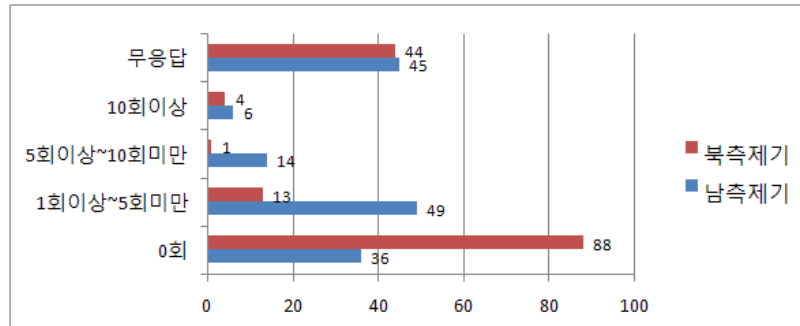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분쟁해결조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8(11.3%)	5(10.6%)	0	1(4.8%)	13(8.7%)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우호적인 해결	45(63.4%)	33(70.2%)	3(25.0%)	11(52.4%)	92(61.3%)
남북 당국간 합의된 상사분쟁절차	5(7.0%)	1(2.1%)	6(50.0%)	4(19.0%)	16(10.7%)
남측 또는 북측에서의 중재 또는 소송	0	0	0	1(4.8%)	1(0.7%)
제3국에서의 중재 또는 소송	9(12.7%)	5(10.6%)	0	2(9.5%)	16(10.7%)
무응답	4(5.6%)	3(6.4%)	3(25.0%)	2(9.5%)	12(8.0%)
합계	71(100%)	47(100%)	12(100%)	21(100%)	150(100%)

IX-2 연간 클레임 발생 현황

□ 응답업체의 46%가 클레임 경험

- 남측업체의 46%가 북측에 클레임을 제기한 사례가 있으며 북측업체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받은 업체도 11%정도 있음
- 일반교역업체의 클레임 제기 건수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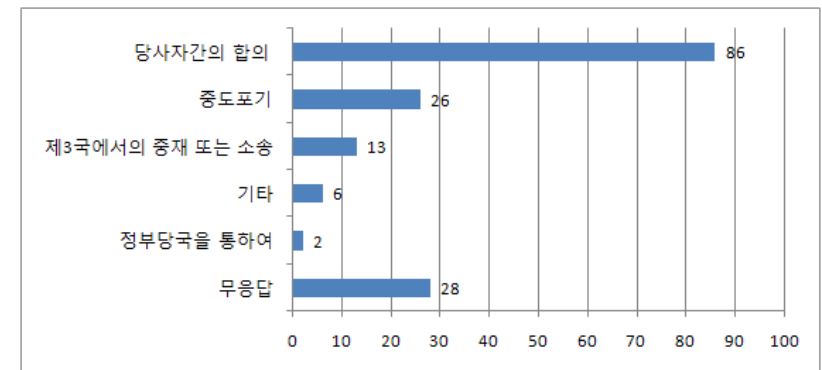
남 측 제 기	회 수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 타	전 체
	0회	19(26.8%)	9(19.1%)	2(16.7%)	6(30.0%)	36(24.0%)
	1회이상~5회미만	26(36.8%)	15(31.9%)	3(25.0%)	5(25.0%)	49(32.7%)
	5회이상~10회미만	8(11.3%)	5(10.6%)	1(8.3%)	0	14(9.3%)
	10회이상	2(2.8%)	3(6.4%)	0	1(5.0%)	6(4.0%)
	무응답	16(22.5%)	15(31.9%)	6(50.0%)	8(40.0%)	45(30.0%)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북 측 제 기	회 수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 타	전 체
	0회	50(70.4%)	23(48.9%)	5(41.7%)	10(50.0%)	88(58.7%)
	1회이상~5회미만	3(4.2%)	8(17.0%)	1(8.3%)	1(5.0%)	13(8.7%)
	5회이상~10회미만	0	0	0	1(5.0%)	1(0.7%)
	10회이상	2(2.8%)	2(4.3%)	0	0	4(2.7%)
	무응답	16(22.5%)	14(29.8%)	6(50.0%)	8(40.0%)	44(29.3%)
계		71(100%)	47(100%)	12(100%)	20(100%)	150(100%)

IX-3 클레임 처리 실태

□ 클레임 처리 수단 부재

-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한 사례가 53%였으며 해결하지 못하고 중도포기한 사례가 16%로서 적지 않은 업체들이 손실을 감내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드문 사례이나 정부당국을 통해 해결하였다고 응답한 업체(1.2%) 및 제3국에서의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하였다고 응답한 업체(8.1%)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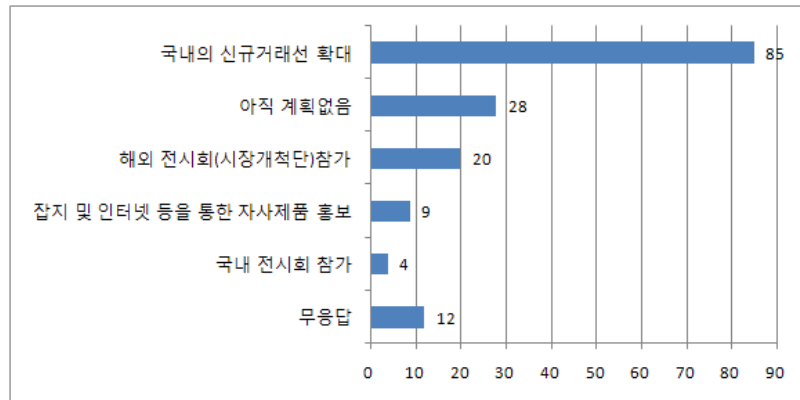


문 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 타	전 체
당사자간의 합의	43(53.8%)	24(50.0%)	7(53.8%)	12(60.0%)	86(53.4%)
정부당국을 통하여	0	0	1(7.7%)	1(5.0%)	2(1.2%)
중도포기	15(18.8%)	10(20.8%)	0	1(5.0%)	26(16.1%)
제3국에서의 중재 또는 소송	9(11.3%)	4(8.3%)	0	0	13(8.1%)
기타	2(2.5%)	4(8.3%)	0	0	6(3.7%)
무응답	11(13.8%)	6(12.5%)	5(38.5%)	6(30.0%)	28(17.4%)
합 계	80(100%)	48(100%)	13(%)	20(100%)	161(100%)

X. 교역업체의 시장개척수단

□ 응답업체들은 주 시장개척수단으로 국내 신규거래선 확대를 지목

- 54%의 응답자가 국내 신규거래선 확대를 주요 시장개척수단으로 지목하였고 개성공단업체중 50%는 해외전시회 참가를 시장개척수단으로 고려하고 있음
- 국내전시회 참가를 시장개척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는 업체는 4%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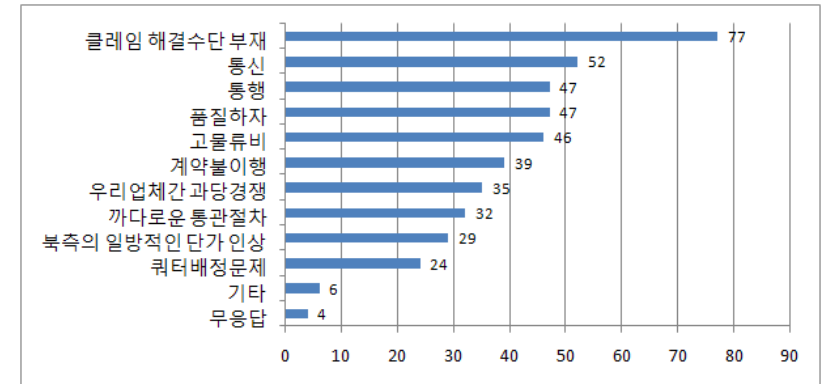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국내 신규거래선 확대	45 (61.6%)	29 (58.0%)	5 (35.7%)	6 (28.6%)	85 (53.8%)
국내 전시회 참가	1 (1.4%)	2 (4.0%)	1 (7.1%)	0	4 (2.5%)
해외 전시회 (시장개척단)참가	1 (1.4%)	8 (16.0%)	7 (50.0%)	4 (19.0%)	20 (12.7%)
잡지 · 인터넷 등을 통한 자사제품 홍보	3 (4.1%)	4 (8.0%)	0	2 (9.5%)	9 (5.7%)
아직 계획없음	17 (23.3%)	4 (8.0%)	0	7 (33.3%)	28 (17.7%)
무응답	6 (8.2%)	3 (6.0%)	1 (7.1%)	2 (9.5%)	12 (7.6%)
합계	73 (100%)	50 (100%)	14 (100%)	21 (100%)	158 (100%)

XI. 교역시 애로사항

□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가 가장 큰 애로사항

- 클레임해결수단 부재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하였고 통신, 통행, 품질하자, 고물류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개성공단 업체는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목



문항	일반교역	위탁가공	개성공단	기타	전체
고물류비	27(12.4%)	10(7.6%)	1(2.8%)	8(15.1%)	46(10.5%)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34(15.7%)	34(25.8%)	3(8.3%)	6(11.3%)	77(17.6%)
계약불이행	16(7.4%)	10(7.6%)	5(13.9%)	8(15.1%)	39(8.9%)
품질하자	28(12.9%)	13(9.8%)	3(8.3%)	3(5.7%)	47(10.7%)
북측의 일방적인 단가인상	11(5.1%)	10(7.6%)	3(8.3%)	5(9.4%)	29(6.6%)
쿼터배정문제	23(10.6%)	1(0.8%)	0	0	24(5.5%)
까다로운 통관절차	18(8.3%)	5(3.8%)	7(19.4%)	2(3.8%)	32(7.3%)
통행	19(8.8%)	16(12.1%)	6(16.7%)	6(11.3%)	47(10.7%)
통신	12(5.5%)	25(18.9%)	5(13.9%)	10(18.9%)	52(11.9%)
우리업체간 과당경쟁	26(12.0%)	3(2.3%)	2(5.6%)	4(7.5%)	35(8.0%)
기타	1(0.5%)	4(3.0%)	1(2.8%)	0	6(1.4%)
무응답	2(0.9%)	1(0.8%)	0	1(1.9%)	4(0.9%)
합계	217(100%)	132(100%)	36(100%)	53(100%)	438(100%)

XII.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

□ 남북 불편사항 개선요망

- 북한 현지생산공장에서의 상품검사 필요 : 의류위탁가공교역업체들은 중국인 대리인을 북한 생산공장에 파견하거나 혹은 단동 등 제3국에서 상품 검사나 관리를 하고 있어 이중, 삼중의 비용이 소요되어 결국 중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 북한 현지에 투자한 사업자에게 복수VISA 발급 요망 : 북한현지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방북할 수 있는 현실이 사업 활성화에 큰 장애요인임

□ 사업상담을 위한 직통선 개설

- 남북직통선 수단이 없어 대부분 간접 상담을 해야 함. 제3국 경유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관계로 통신비가 과다하게 소요됨
- 정부통제 (경협사무소 등) 하에서라도 직통선 개통 요망
- 우선 FAX만이라도 직통선이 이루어지도록 요망
- 인터넷 개통 요망

□ 분쟁해결방안 마련 요망

- 품질하자, 납기지연 등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제도적 해결방안이 없어 업체들이 수시로 곤경에 처함
-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개성공단외 지역 진출업체들은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
- 공급 원부자재 분실사고 빈번하게 발생 : 임가공비 및 세금혜택 등의 장점을 감쇄시키는 주요인임

□ 북측 창구단일화(민경련) 정책으로 인한 상담주도권 상실 우려

- 북측은 민경련으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우리 업체들을 경쟁시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등 횡포를 부리는 경우가 있음
- 실정을 모르는 신규참여업체들은 사업개시를 목적으로 무리한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스스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기존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북측 창구인 민경련이 개입함으로써 실제 생산공장에서 제시하는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며 그 차이가 남측업체에 전가되는 결과임
- 모래사업의 경우 선불금을 예치해야 하고 목표물량 미달시 위약금이 과다하며 특정업체에 독점권을 부여코자 하는 조치 등 부당한 사례가 많으므로 개선 조치 요망

□ 해상운송의 문제점 해소 개선 요망

- 선박운임이 주변국가로 운행하는 선박운임보다 너무 높음
- 일주일에 2항차 정도는 운항하여야 납기문제 등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음
- 적은 물동량 때문에 높은 운임이 형성된 것이라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여 해상운임을 주변국 수준으로 낮춰야 함
- 북측에서 선적하는 화물은 반입업체가 CIF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북측 설득 요망 (컨테이너 공실 발생하여 원가인상 요인)

□ 남북 금융결제제도 수립 요망

- 현재 남북간 대금결제수단이 T/T 혹은 현금 밖에 없으므로 대금결제에 의한 리스크가 상존함. L/C 제도 도입 요망

□ 남북경협기금의 효율적 지원 요망

- 경협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많으나 담보를 제시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남북교역업체들이 거의 활용을 못하고 있음
- 남북교역 실적 및 교역기간을 감안하여 신용대출제도 도입 요망
- 남북교역업체 중에서 신뢰도, 기술력 등 관리가 가능한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노후 설비 교체 및 신증설에 따른 투자자금의 경협기금 지원제도를 수립해 주기를 요망

□ 육로운송(도로·철도) 개통 요망

- 남북교역 활성화의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 육로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 현재의 해상운송은 시간과 비용이 터무니 없이 많이 소요됨. 따라서, 생산기간도 주변 중국보다 더 길게 소요되어 원부자재 구매금액에 대한 자금부담까지 안게 됨
- 평양 등지의 방북시 개성 경유한 육로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교역업체들의 단합기구 결성 요망

- 현재의 남북상담구조로는 북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 밖에 없으므로 남측기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단합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 월 50만달러 이상 교역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북교역업체들의 자율협의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 요망

□ 북측 생산공장 정보교류 요망

- 전기부족으로 생산을 멈춘 사례가 있음. 신규업체들이 북측 생산공장에 대한 정보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반입통관시 까다로운 통관절차 개선요망

- 제3국 경유 북한산 물품 반입시 사전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수산물 반입시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밀검사제도를 폐지해 줄 것을 요망함
- 生物의 경우 국내시장 안정을 위하여 반입상품의 국내양식 허용 요망

□ 북한 내륙에 진출한 업체들이 개성공단을 활용하여 상담, 상품검사, 육로통한 상품반입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조치 요망

- 제3국 경유한 상담 및 상품검사방법 등의 문제점 해소 방안

□ 정부의 장밋빛 보도 자제 요망

-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와 보도를 통해 선의의 기업자들이 북한상황을 오관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요망

□ 비영리 민간단체를 통한 무상지원 축소 요망

- 한국업체에 대한 기부 요청이 일반화되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무상에 대한 관심만 높아져서 고용을 창출해 주고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홀대시 하는 현상이 있음

□ 경협사무소 역할 개선 요망

- 경협사무소 역할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일과 업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여 추진해야 함
- 부족자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현재의 견본 발송처럼 경협사무소 통해서 북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평양 등 내륙지방에 투자한 업체들은 문제점을 해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음. 경협사무소가 일정 역할을 맡아주기 바람

□ 개성공단 관련 건의사항

- 개성공단 건설 속도조절 필요 : 주변 불확실성 요소가 많은데 대규모 공단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인상이 있음. 문제가 생길 경우 업체만 손해를 보게 되므로 신중한 진행이 필요함
- 출입신고 절차 간소화 : 개성공단 접근도로 향하는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체증으로 출입이 곤란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일정을 조절해야 하는 등 업무상 큰 애로가 발생. 출입신고시 연월일만 신고하고 출입은 현재대로 30분 간격으로 임의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요망
- 개성공단 외곽지역 출입에 대한 조치 개선 : 개성공단 바깥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사에 대해 품질을 확보하고 적기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개성공단의 지역에 대한 출입제한을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북측에 요구할 필요가 있음
- 개성공단 내에서 휴대전화 및 인터넷 사용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 요망
- "개성공업지구법 6조"에 명시된 대로 북측이 개성공단사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 바람. 남측 당국자가 본 사항을 북측에 수시로 주지시켜야 함
- 생산성 저하요인 및 북측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불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북측인력에 대한 임금직불제 시행 및 능력급제 운영이 필요함
- 물류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통관시간을 정하지 말고 당일내 임의통관할 수 있도록 조치

□ 북측과 소프트웨어 개발분야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소프트웨어 개발분야는 북측의 인재가 몰려있는 반면 남측은 최근 기피업종으로 변하고 있음. 따라서, 북측 인적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정부에서 주도하여 개성공단에 한국의 구로 디지털단지와 같은 별도의 소프트웨어 개발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요망

□ 금강산 지구에 진출한 업체에도 배려 요망

- 남측 전기 공급 요망 (양질의 상품 생산을 위해 필요)
- 고정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상시출입이 가능하도록 배려 요망
- 물품 이동시 일주일 전에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식자재 등은 특수상황으로서 식수변동을 감안하여 2~3일전에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 요망

□ 북측 사업자의 인식 변화 유도

- 북측사업자가 남측사업자를 공동파트너로 생각하는 인식이 부족
- 북측사업자들은 아직도 남측사업자들이 도와만 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남북경협의 최대 걸림돌임
- 남측기업들이 중국생산과 북측생산을 비교하며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측에 전달해야 함. 다수의 남북교역업체들은 북측생산을 중단하고 중국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실정을 잘 모르는 신규업체들은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음

□ 남측으로 반입되는 북측상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민정련)의 단일화조치는 불합리하므로 개선 요망

- 현 제도는 남측기업인에게 불이익이 많고 북측 생산자들도 원하고 있지 않아 남북직교역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북측의 대외상품검사위원회 발행 원산지증명서도 동등하게 인정받도록 제도화해야 함

□ 보험제도 수립 요망

- 비상위험에 국한되어 있는 손실보조제도의 화재, 물품하자, 수량부족 등의 리스크도 커버할 수 있는 보험제도를 개발해 줄 것을 요망

□ 청산결제제도 시행

-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산결제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함

□ 통일부 한도물량(쿼터제) 운영품목 개선 요망

- 명분이 없는 쿼터제를 폐지해 주고 통일부 승인 대상품목도 해제해 주기를 요망
- 쿼터 배정시 전문업체를 우대해 주기를 요망
- 신규업체는 쿼터 배정을 받기 어려움. 신규업체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야 함

□ 남북무역업체 인증 제도 도입 요망

- 북측 정보의 부재와 무분별한 과다경쟁에서 오는 우리 업체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일부 혹은 무역협회에서 남북무역업체를 지정하는 인증제를 도입하기를 요망

□ 설문조사 요청사항 개선결과 통보 요망

- 1년에 여러 기관으로부터 4~5회 설문조사 요청을 받고 있는데 실제 개선된 것은 거의 없음. 실질적인 개선을 요망함

첨부#1

설문지

2007년도 남북경협 전망 및 애로사항 조사

본 조사는 금년도 남북경협 중점 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별업체의 응답내용에 대한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작성하셔서 오는 **2월 9일까지**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신방법 : 작성하신후 e-Mail (jkleeb@kita.net) 혹은 FAX (02-6000-5328)로 송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문 의 처 :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팀
담당: 서옥태 차장, 이종근 연구위원 / Tel: 02-6000-5591

※ 성실하게 응답해 주신 분께 2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우송해 드릴 예정입니다오니 작성자 주소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회사명			작성자			직위		
TEL			FAX			E-mail		
취급교역품목 (해당되는사항 모두 표시)	① 단순교역() ② 위탁가공() ③ 개성공단사업() ④ 기타경제협력사업()							
	① 농산물() ② 수산물() ③ 광산물() ④ 전기/전자() ⑤ 섬유/의복() ⑥ IT·S/W() ⑦ 기계() ⑧ 철강금속(아연피 등)() ⑨ 기타(품목명:)							
대북교역형태	① 직접교역() ② 간접교역() ③ 직접+간접() ④ 기타()							
반입품목판로	① 전량내수() ② 전량수출() ③ 내수+수출() *수출국()							
대북교역년수	① 2년이하() ② 2년~5년() ③ 5년~10년() ④ 10년이상()							

설 문 지

1. 지난해 귀사의 대북교역 실적은 전년에 비해 어떻습니까? ()

- ① 크게 증가 ② 약간 증가 ③ 전년 수준 ④ 크게 감소 ⑤ 약간 감소

2. 지난해 귀사의 대북교역결과 수익면에서 성과는? ()

- ① 대폭 흑자 ② 약간 흑자 ③ 손익분기점 ④ 약간 적자 ⑤ 대폭 적자

3. 금년도 귀사의 대북교역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어떠한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 ① 크게 증가 ② 약간 증가 ③ 지난해 수준 ④ 크게 감소 ⑤ 약간 감소 ⑥ 사업 철수

3-1. 대북 교역 감소 전망시 주된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

- ①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② 반입단가(또는 입가공료) 상승에 따른 채산성 악화
③ 품질하자, 계약불이행 등 북측 거래선에 대한 신뢰 미흡
④ 쿼터규제, 위장반입 단속 강화 등 제도적 요인
⑤ 중국 등 제 3국으로의 거래선 전환
⑥ 북측의 남측 교역업체에 대한 요건 강화
⑦ 북한의 7·5미사일발사 및 10·9핵실험
⑧ 기타()

3-2. 대북 교역 증가 전망시 주된 이유는? (복수응답 가능) (,)

- ① 신규 오더량 증가 ② 품질 우수 ③ 교역품목수 확대
④ 거래선과의 두터운 신뢰관계 구축 ⑤ 거래품목의 수요증대
⑥ 북핵문제해결 등 남북관계의 개선이 기대되기 때문
⑦ 기타()

4. 북핵문제해결 등 남북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 ① 크게 악화 ② 악화 ③ 비슷 ④ 개선 ⑤ 크게 개선

4-1. 남북관계 변동(개선 및 악화)이 귀사의 대북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

- ① 매우 크다 ② 약간 크다 ③ 매우 미미 ④ 약간 미미 ⑤ 전혀 없다

5.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만족수준은? ()

-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불만

5-1. 대북교역시 귀사의 대금결제 방식은? ()

- ① 신용장(L/C) ② 송금환(T/T) ③ 현금 ④ 신용장+송금환 ⑤ 물물교환

5-2. 대북교역시 귀사의 결제통화는? ()

- ① USD(미달러) ② EUR(유로화) ③ 중국인민폐 ④ 일본엔화 ⑤ 물물교환

6. 귀사의 북한물품 주반출입 경로는?

- ① 직항로(남포↔인천) ② 직항로(나진↔부산) ③ 중국단둥 경유 간접항로
④ 남북간육로 (경의선, 동해선) ⑤ 기타()

6-1. 직·간접항로를 혼용하여 사용할 경우 귀사의 전체 반출입물동량중 제3국 경유 비중은? ()

- ① 95%이상 ② 51%~95% ③ 50% ④ 5%~49% ⑤ 5%미만

6-2. 제3국을 경유하는 사유는(복수응답 가능) (,)

- ① 선적전 물품하자 확인 ② Washing 등 마무리공정
③ 납기지연 방지 ④ 낮은 운임(비용) ⑤ 기타()

7.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중에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8만평을 200여개업체에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북핵실험으로 추가분양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2007년 중 한국토지공사가 분양을 재개할 경우, 귀사의 개성공단 투자 계획은?

- ① 북핵사태와 상관없이 적극 투자할 계획
② 분양 공고 이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③ 북핵사태 해결추이에 따라 결정
④ 개성공단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투자하지 않음

7-1. 귀사가 개성공단 투자에 적극적인 이유는?(복수응답 가능)(,)

- ① 인건비 절감 및 구인난 해결 ② 중국, 동남아 대비 투자비용 저렴
③ 물류비 절감 ④ 납기단축 ⑤ 선점 효과
⑥ 북한사업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 활용
⑦ 기타()

7-2. 부정적, 소극적일 경우 주된 이유는?(복수응답 가능)(,)

- ① 전략물자 반출 제한 ② 원산지문제 등에 따른 판로확보 곤란
③ 엄격한 심사기준 ④ 정치·군사적 리스크 ⑤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⑥ 북한과의 거래를 했던 과거 경험에 의한 직관적 판단
⑦ 기타()

8. 개성지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경협사무소)의 활동 및 기능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 ① 잘 알고 있으며 적극 활용하고 있다.
- ② 잘 알고 있으나 활용도는 낮다.
- ③ 적극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중이다.
- ④ 활용하기가 불편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 ⑤ 자유로운 방문이 이루어지기전에는 활용할 계획이 없다.

8-1. 경협사무소가 남북직교역 확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 ① 대북교역업체들의 원활한 방북초청장 발급 및 상담주선
- ② 육로운송개통 등 남북물류체계 개선
- ③ 상담회 및 상품전시회 개최
- ④ 남북기업간 상품정보교환 및 거래알선
- ⑤ 기타()

9. 남북 경협(교역, 투자)시 애로사항은?(복수응답 가능) (, ,)

- ① 고물류비 ②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 ③ 계약 불이행 ④ 품질하자
- ⑤ 북측의 일방적인 단가인상 ⑥ 쿼터배정 문제 ⑦ 까다로운 통관절차
- ⑧ 통행 ⑨ 통신 ⑩ 우리업체간 과당경쟁 ⑪ 기타()

10. 남북교역계약서상에 분쟁해결조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

- ① 분쟁해결조항을 규정하지 않는다.
- ②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우호적인 해결
- ③ 남측 또는 북측에서의 중재 또는 소송
- ④ 제3국에서의 중재 또는 소송

10-1. 남북교역시 귀사의 연간 클레임발생 건수는?

- ① 귀사측 제기: 약 ()건 ② 북측 제기: 약 ()건

10-2. 북한과의 교역 중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 ① 당사자간의 합의
- ② 정부당국을 통하여
- ③ 중도포기
- ④ 제3국에서의 중재 또는 소송
- ⑤ 기타()

11. 귀사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시장개척수단은 무엇입니까? ()

- ① 국내의 신규거래선 확대
- ② 국내 전시회 참가
- ③ 해외 전시회(시장개척단) 참가
- ④ 잡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자사제품홍보
- ⑤ 아직 계획없음

※ 남북경협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교역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북측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포함)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응답업체 리스트 (비공개 내부자료)

NO	업체명	작성자	직위	NO	업체명	작성자	직위
1	가람수산	김진홍	대표	37	동광인터내셔널	신현수	과장
2	강남수산	허세범	사장	38	동림상사	이동원	대표
3	강변수산	이혜정	대리	39	동명자원	박동석	대표
4	강호인터내셔널	이욱재	차장	40	동서종합무역	김상용	대표
5	거성아이엔지	송병석	대리	41	디씨티와이	이재길	부장
6	경남수산	백덕호	사장	42	디앤에이티	김성욱	부장
7	경맥	추지현	대리	43	문창기업	문민식	상무
8	고도통상	이정진	대표	44	미로텍특허법률	노완구	변리
9	고든통상	하남교	대리	45	바앤씨무역	방영국	대표
10	고려아연	노홍윤	주임	46	백석해운	오승동	
11	국양해운	조기환	과장	47	보람상사	박희열	상무
12	금도무역	장주옥	이사	48	부영종합무역	박영일	대표
13	금원수산	배은화		49	블리스물류	이재왕	과장
14	기남무역	권혁진	전무	50	비앤비해운	박규배	상무
15	기노러	김흥배	고문	51	비앤지	조옥주	대표
16	나미인터내셔널	남영철	사장	52	사랑의 연탄나눔	윤유선	실장
17	남북교역	김승균	사장	53	산림유통	김승철	대표
18	녹십자	우한상	상무	54	삼성전자	김승영	차장
19	농림생약	손재철	사장	55	삼원코퍼레이션	권연오	대표
20	누리섬유	황영희	대리	56	상하 CM	김세병	사장
21	다우티에프씨	장기영	차장	57	삼스코	김만구	과장
22	다원디엔지	류재훈	대리	58	선우	장훈	이사
23	단동산업	임해선	고문	59	선우스포츠	정태환	사장
24	단화무역	한운봉	부사	60	선진티엠	민흥기	이사
25	대광산업	배춘식	대표	61	성신산업	나유미	사원
26	대동무역	김영미	전무	62	세광테크노전자	안상권	이사
27	대륙무역	유현	대표	63	수성무역	강병철	부장
28	대명섬유	김남기	대표	64	승국물산	김귀자	계장
29	대우인터내셔널	김상욱	이사	65	신미농수산	박소영	사원
30	대진냉동	유진희	과장	66	신양스포츠판사	김남진	대표
31	대하프리존	송재욱	과장	67	신원	신충렬	대리
32	대한광업진흥공사	최경수	부장	68	신화인터크루	구양욱	부장
33	대한흥산	변유경	사원	69	씨제이푸드	조성환	사원
34	대후기업	이병선	이사	70	아이니무역	서영진	대표
35	더 베이직 하우스	김태진	부장	71	아이보리	김종대	상무
36	도남물류	김남선	대표	72	아트랑	김수영	차장

NO	업체명	작성자	직위	NO	업체명	작성자	직위
73	양포식품	이상구	부장	112	케이엠푸드	백송원	부장
74	에스엠트레이링	이명천	대표	113	코엔코어패럴	고태경	대리
75	에스제이와이텍스	박영근	이사	114	코오롱패션	장영준	과장
76	에스제이테크	임황용	실장	115	크라운	민현식	사장
77	에이원무역	정은희		116	타로무역	강용근	이사
78	HFG 엔터테인먼트	한상훈	대표	117	태성산업	허갑연	주임
79	엘지전자	권현철	과장	118	태승엘스케이	민근혜	대리
80	엘지패션	강장원	차장	119	통일농수산	김치섭	간사
81	엘칸토	전주권		120	티앤에스인코	이무석	부장
82	엘피다	유일봉	사장	121	T-CROSS	김정용	대표
83	엠티레포츠	이혜석	대표	122	파람무역	김기영	대표
84	오케다	정병진	부사	123	폴리통상	박장섭	사장
85	Y&I인터내쇼날	홍승미	사원	124	풍년기업사	김성엽	차장
86	우성	김성수	이사	125	프렉코	장종림	대리
87	우신유나이티드	박우경	대표	126	하나비즈닷컴	문광승	대표
88	우신통상	안기원	대표	127	하나트레이딩	김양욱	이사
89	웰빙씨푸드	허창영	대표	128	하마무역	한광찬	대표
90	유니더스	이희아	주임	129	한국국제기아	박찬욱	간사
91	유니코텍코리아	유완영	회장	130	한국섬유산업	주성호	대리
92	유지상사	정준화	사장	131	한국수출입은행	이형주	부장
93	이랜드윌드패션	박은태	과장	132	한국솔라	김시욱	사장
94	이왕상사	김은경	사원	133	한국엘피가스	문남주	본부
95	인경	공순현	부장	134	백두산들쭉술	김기창	사장
96	인덕어패럴	김성균	실장	135	한국토지공사	김은종	처장
97	자연	허호욱	사장	136	한민족복지재단	김동언	주임
98	장미회	박현석	사무	137	해룡무역.컨설팅	강종업	대표
99	정광수산	김운범	대표	138	해중실업	권대원	대표
100	제이엠모드	김오순	과장	139	현대아산	김영수	부장
101	제일모직	안성렬	과장	140	현대택배	변우근	사원
102	조선청진무역	성해욱	대표	141	협선어패럴	전광인	고문
103	좋은사람들	박종웅	과장	142	호상기업	김성원	사장
104	중국무역	문장호	대표	143	호암무역	이갑준	사장
105	충원기업			144	홍태상사	이영길	사장
106	진명통상	김장오	대표	145	화인레나운	우홍완	법인
107	진성상회	박영재	대리	146	효원물산	김영일	사장
108	천도	김동욱	사장	147	E1	주진우	차장
109	청화무역	윤??	대표	148	ENS	손세진	부장
110	KH인터내셔널	구선희	사장	149	G-한신	장병욱	실장
111	KNC 인터내셔널	김현성	대표	150	KT	박원길	과장